

인성과 창의성의 결합이 필요한 시대

창의력은 우리의 인성을 순화한다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싫든 좋든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이고, 싫든 좋든 인간은 모여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싫든 좋든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과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하는 지구촌의 시대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개인주의는 인간 소외와 인간성 박탈, 정신적 황폐화 등의 부작용을 겪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비행의 증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등 크고 작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패륜적 범죄의 증가, 이해집단 간의 갈등증폭, 폭행과 살인 등 끔찍한 사건들이 날로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세태를 볼 때면 인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점차로 매몰되어 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인성교육이 절실해진다.

또한 세계화 사회는 개방과 경쟁, 협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때 필요한 경쟁의 무기가 바로 창의력이다. 이러한 창의력은 저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 가능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국창의재단에 따르면, 창의성과 인성은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교육부의 창의·인성 교육 정책을 보면, 창의성과 인성은 각각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성요소나 함양 방법 등에 있어 상호유사하며 보완성이 높은 성질이다. 창의성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면, 인성은 '창의성을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우종욱이 엮은 <21

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에서 우종옥 총장은, 21 세기의 교육은 창의성 개발 교육과 인성 교육을 양대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창의력이 우리의 인성을 순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두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것을 접하고 습득할 때 우리의 인성이 순화된다면 찰스 다윈의 주장을 인용한다. '끝까지 생존하는 것은 강한 종이나 지능이 높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즉, 자연환경의 변화 혹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한 주체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며, 이 때 사람은 여유를 찾고 사랑을 가지며 관대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한 적응과 그에 대한 안도감'을 창의성이 우리의 인성을 순화한다는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창의성의 평가 요소에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이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융통성(flexibility)이 인성을 순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융통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관계되며 이는 너와 나의 공동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성향을 나타나게 한다. 즉, 그는 창의력이 바라보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계발, 신장해 나간다면 이것이 인성의 순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기존 통념으로는 창의성과 인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창의성은 예술, 과학 등에서 중점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능력이었던 반면,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도교육, 생활지도교육, 도덕교육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의 교육은 창의성, 다양성, 개방성 등 시대와 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창의·인성 교육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창의성은 지능이 아니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기르

는 교육은 지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이 아니며,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돈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며 훌륭한 음식 솜씨를 보이고,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신하고 기발한 재간을 발휘하는 가정주부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다. 또한 빈약한 장난감을 가지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놀 줄 아는 아이 역시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독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창의적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창의력은 사고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능 지수가 높으면 창의력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능이 높으려면 $2+5=7$ 이라고 빨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창의력이 높으려면 $2+5$ 는 반드시 7이 아니라, 25도 되고 '요구르트'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표현해 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세상과 나누면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행복의 감정은 우리를 여유롭고 관대하게 만들어주며 결국 우리의 인성을 순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은 기존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단순히 합해 놓은 개념이 아니다. '도덕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미래사회의 글로벌 리더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인성을 위한 교육이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에 거는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현실에서는 창의성을 먼저 강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의성 역시 바람직한 인성의 바탕 위에 서지 못할 경우, 크나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아야 할 것이다. TTA